

협회소식

양돈자조금 공동 준비위원장에 김건태 회장, 송건섭 조합장 선출

- 제1차 준비위, 30두 이상 사육농가 중 대의원
선출키로



농협 측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파행을 겪어왔던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가 본회의 공동위원장 선출 수용을 계기로, 양돈자조금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본회와 농협 측이 단일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선출을 놓고 참여한 대립을 보이다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 단일위원장 선출이 확정되자 농협 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본회는 양돈자조금의 빠른 시행을 위해 전국양돈조합협의회(회장 오경욱)과 지난 6월 11일 '양돈자조금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안을 수용하였으며, 본회와 양돈조합장에서 1명씩 호선하기로 했다. 또 양돈자조금 제도가 양돈산업의 주축인 양돈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현 준비위원회 위원 중 농협중앙회 임원 1명을 양돈조합장으로 교체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6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다시 회의를 재개, 본회 김건태 회장과 송건섭 대전충남양돈협동조합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양돈자조금 시행을 위한 주요 안건을 빠르게 협의, 추진했다. 이날 준비위는 임시위원장이었던 김강식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이 자리를 물러나고 김건태 본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이날 결정된 주요 안건은 ▲선거권자는 30두 이상 사육농가 ▲대의원 선출구는 시·군(광역시·시 단위) ▲선거방법은 직접 투표 ▲투·개표 장소는 양돈협회 지부(지부가 없는 지역은 지역축협 협조) 등이다.

한편, 이날 준비위에는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김강식, 김동환, 김성곤, 나상진, 박정유, 박종수, 박해준, 송건섭, 송정기, 이운자, 최영렬(가나다 순) 위원(12명)이 참석하였으며, 농림부 관계자 2명과 공동추진 실무자, 언론기자 등도 참석했다.

본회 · 전국양돈조합장, 양돈자조금 제도 조기 정착 노력에 합의

- '양돈자조금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서



본회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오경욱)는 '양돈자조금활동자금설치 준비 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제로 합의하는 등 양돈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빠른 시일내 준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본회는 지난 6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김건태 회장 등 회장단 및 도협의회장, 오경욱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 등 양돈조합장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자조금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본회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7년동안 전국 축산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축산농가 스스로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이에 본회와 협의회는 양돈산업의 주축인 양돈인들이 중심이 되어 양돈자조금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빠른 시일내 양돈자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되 본회와 양돈조합장에서 1명씩 호선하기로 하고, 양돈자조금 제도가 양돈산업의 주축인 양돈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현 준비위원회 위원 중 농협중앙회 임원 1명을 양돈조합장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농림부관계자는 "2004년 양돈자조금 정부 보조금 예산을 60억원으로 책정,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양돈자조금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본회, 배합사료가격 인상 자제 강력 요청

- 농협중앙회 · 사료협회 · 민간 사료업체 등 총 32곳에

본회는 지난 6월 4일 국내 사료업체들의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및 환율 강세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사료협회, 민간사료업체 등 총 32곳에 공문을 보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양돈업계는 지난해와 올 3월 이후 전국을 강타한 돼지콜레라 발생과 이에 따른 수출중단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부진 등으로 저돈가 현상이 9개월여 동안 지속되어 양돈농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기둔화, 내수감소, 물가상승 등의 악재로 예년보다 크게 낮은 돼

지 가격이 예상되고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악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료업체들이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값 상승 등을 이유로 배합사료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사료협회와 사료업체에 "양축농가의 어려운 상황과 최근 환율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고, 사료업체와 양축농가는 공생의 관계라는 점을 주지하여 사료업체와 양축농가간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사료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농림부에도 "사료가격 인상자제를 지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자조금제도 조기 정착에 총력키로

- 본회, 전국 도협의회장 회의 열고 결정



본회는 지난 6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진태 회장을 비롯, 최상백 명예회장, 한백용 고문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협의회 회장단 등 참석자들은 '전국 양돈인 쉼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지부장 긴급 임시총회 등을 열어 분위기 조성 및 양돈인들의 주장을 수렴하

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또한, 양돈 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속개하는 한편, 조기정착을 위해 농협측과 다각적인 접촉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도태모돈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본회,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재요청

-농림부에 가축재입식 자금 선 지급도 요청

본회는 지난 11일 오후 3월 이후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양돈농가의 농장경영 조기정상화를 위해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을 재요청하는 한편, 가축재입식 자금 선 지급 등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3월~4월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에서는 농장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 노력을 실시하려고 하나 농가의 자금사정 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마저 늦어지고 있어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농장경영 조기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회는 살처분 농가의 농장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발생 시·군별로 살처분 보상 지급금액이 결정되면 최단 시일 내 동 보상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살처분한 농가가 후보돈을 구입하여 농장경영 조기 정상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가축재입식 자금을 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살처분한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있는 가축재입식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륙 교체모돈 필리핀 수출 추진

- 본회, 전국 각 지부(회)에서 1만두 기증받아

6월말 부터 교체모돈이 필리핀으로 수출될 전망이며 국내 양돈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회는 제주양돈조합과 공동으로 제주산 교체모돈 필리핀 시범 수출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한 가운데, 6월 23일부터 본회 지부(회)를 대상으로 교체모돈을 수거하고, 6월말 쯤 1차분을 수출하는 등 본격적인 내륙지역 교체모돈 1만두 수출사업 추진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92page 참조〉

필리핀 돈육 수입업체 대표 내협

- 교체 모돈 필리핀 본격 수출 협의



지난 6월 4일 필리핀 돈육 수입업체인 '쏘나이스 인터내셔널' 세살디 대표가 본회를 내방하고, 향후 본격적인 육지 교체 모돈 수출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김건태 회장은 “교체 모돈 수출사업이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올 7월이후 육지에서도 교체 모돈을 수거하여 수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교체 모돈 수출사업을 위해 필리핀 돈육 수입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필리핀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로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내 교체 모돈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회, 전국 13개 도매시장 기준가격 적용 요청

- 일부 지역농협의 비정상적인 출하 자제 방안 마련해야

본회는 지난 11일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과 최근 일부 지역농협에서 비규격돈 및 비거세돈을 집중 출하하여 평균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출하를 금지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 조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본회는 “서울농협공판장의 경우 경락가격의 등락 폭이 커 출하일에 따른 농가의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서울 태강산업의 휴장으로 전국 도매시장 경락두수에 대한 서울농협공판장 경락두수의 비중이 14%로 낮아 전체 거래 물량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워 기준가격으로서의 투명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농협에서 비규격돈 및 비거세돈을 집중 출하하고, 일부 육가공업체

에서 타 도축장에서 도축한 뒤 서울농협공판장으로 지육을 상장하고 있어 평균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일부 지역 농협의 비정상적인 출하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출하 자체와 지육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 조치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본회는 “정부 보상금 산정 등 정책 방향 설정시에도 전국 13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KBS 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 폐지 방침 철회 요청

- 축단협, 노무현 대통령 · 한국방송공사장 등 서신 보내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KBS 유일한 농업관련 라디오 프로그램 ‘밝아오는 새아침’ 폐지 방침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한국방송사장 등에 서신을 보내 동 프로그램 폐지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축단협은 최근 “KBS, MBC, SBS 등 3개 공중과 방송사의 라디오 16개 채널 중 유일한 농어민 대상 전문 프로그램인 ‘밝아오는 새아침’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농업인들과 국민들에게 매일 아침 농업인의 어려운 실정과 농어촌 · 농업발전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로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농업인들에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당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개편에 의해 동 프로그램이 폐지될 계획”이라며, “동 프로그램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차원이 아닌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업정보를 공유하는 매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돈협회를 비롯,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 24개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6월 17일 동 프로그램을 반드시 존속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1검정부,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부(경기이천)는 6월20일(금) 제226차 검정돈 경매일에 ‘제8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2년도 경매돈 최다 구입한 AI센터와 양돈농가 및 검정돈을 잘 활용한 모범양돈가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경매돈 구입자를 대상으로 출품종돈장과 기자재

업체에서 후원한 후보돈 및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나눠주었다.

제2검정부, 6월 10일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는 6월10일(화) 제154차 검정돈 경매일에 '제8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2년도 경매돈 최다 구입한 AI센터와 양돈농가 및 검정돈을 잘 활용한 모범양돈가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경매돈 구입자를 대상으로 출품종돈장과 기자재 업체에서 후원한 후보돈 및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나눠주었다.

최우수 AI센터에는 흥성 백월AI센터(한흥재), 최우수 양돈농가에는 서석칠(청도지부), 우수 양돈농가에는 임남희(전주지부), 나상열(나주지부), 모범양돈농가에는 황윤호(정읍지부), 한상돈(강진지부), 서송교(마산지부)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검정소 검정돈의 위생수준을 더 높인 경북대 김봉환 교수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제2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92만원

지난 6월 10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 제 154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지난달보다 12만원 정도 상승한 92만6,58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2두를 비롯, 최우수돈 10두 등 총 168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99만317원(126두)으로 지난달보다 11만6천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3만732원(41두)으로 지난달보다 16만5천원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호박종돈(대표 김창환) 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경북 경산시 화촌면 계전리 소재 이동희씨에게 최고가인 3백80만 원에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포천지부, PMWS 세미나 개최

경기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지난 6월 19일 많은 지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축협 2층 회의실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포천축협 주관으로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의 '이유후전신성소 모성증후군(PMWS) 예방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축산분뇨 처리

장 건립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2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고압세척기를 증정했다.

포천지부, 소비촉진 무료시식회 성료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지난 5월 30일 포천 민속장 공영주차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포천지부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시식회를 통해 전·후지 등 수출부위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식회 뿐만 아니라 돈육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사은품과 요리책자 및 홍보자료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여주지부, '항생제 대체물질' 세미나 개최

경기 여주지부(지부장 김건호)는 지난 5월 23일 지부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로가는 2층 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서봉바이오텍 솔투바이오에서 '항생제 대체물질에 관해'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5월 10일에는 광주·장성지부(지부장 차장근)가 5월 월례회의 겸 한국 애니멀 클리닉센터 김태주 원장을 초빙하여

'혹서기 질병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함께 개최했다.

울산지부장에 이상국씨 선출



이상국 울산지부장

울산지부는 지난 5월 17일 지부사무실에서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상국씨(48)를 신임 울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울산지부장으로 선출된 이상국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에서 지난 88년부터 협진농장을 경영해오고 있으며, 2000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전강민, 감사 정병석, 황남도, 총무 송규식씨 등을 각각 선출했다.

연천지부, 소독시설 비교 평가회 개최

연천지부(지부장 윤상협) 지난 16일 지부사무실에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사업을 앞두고, 농가에 보다 나은 소독시설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소독시설 비교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소독시설관련업체들의 실물전시 및 시연, 소독시설 서면 설명 등이 있었어 참석한 지부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돈**

